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봉사 실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4일 완주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은혜의 동산'(원장 임평화)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공단의 장애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직원(간호사·면허 소지)과 자문의사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직원은 중증장애인의 혈압 및 혈당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공단의 자문의사(재활의학과)는 올바른 재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복지상담을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면역강화제를 제공했다.

박정배 복지지사는 "이번 행사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실천 등 ESC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꽃을 보니 예쁘고 즐거워"

전주시, 돌봄 대상 노인 500명에 반려식물 보급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돌봄 대상 노인 500명에게 코로나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반려식물이란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을 말한다. 이번에 보급된 반려식물은 전주시 양묘장에서 육묘한 식물 중 앤젤로니아 등 개화기가 길고 색감이 있는 5가지의 화초가 활용됐다.

반려식물을 받은 노인들은 "반려식물을 잘 기르겠다", "꽃을 보니 예쁘고 즐겁다"면서 직접 반려식물 이름을 지어주거나 재배법을 문의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용자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정서



적인 안정과 삶의 희망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반응을 통해 반려식물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

전북대학교 신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이희정·이하 전북센터)가 전라북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김제 지평선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9일 전북센터에 따르면 캠페인 활동을 통해 도박문제 선별검사를 비롯해 현장상담, OX 퀴즈를 통한 청소년 도박 이해와 2차 범죄에 대한 설명, 롤랫기임을 통한 도박적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상담전화인 1336과 넷라인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흥보물을 배포하는 등 도박문제 선별과 체험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센터 윤명숙 운영위원장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로 학부모님과 함께 전북센터를 찾아오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박문제 위험군을 조기 선별 및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도박문제 인식 개선과 폐기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국번 없이 1336을 통한 전화상담과 온라인 넷라인 (<http://netline.kcg.or.kr>) 사이트를 통해 체팅상담이 가능하다.

/김은성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아이들 위한 미래모빌리티 학교 개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최준혁) 노사는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모빌리티 학교를 개설한다.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미래모빌리티 학교는 인류 공통의 당면 과제인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전 세계가 활발히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도입 확대, 친환경차 확산 등 시대 흐름을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꿈과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이를 위해 전북 완주군 소재 원주초등학교와 교육협약을 맺고 오는 연말까지 매월 1차례씩 미래모빌리티를 주제로 특별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첫 걸음으로 25일엔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에선 미래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특별제작한 태양광 자동차 교보자를 함께 만들어 봄으로써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 작동원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다음달에는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7~8월에는 각각 미래형 로봇과 항공교통수단 UAM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원주=이중복 기자



건협 전북지부, 덕진공원 일대서 플로깅 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정규일,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25일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플로깅에 나선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 및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은 공원 주변을 걸으며 집계와 봉투를 들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플로깅 활동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대면 봉사활동을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재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단 하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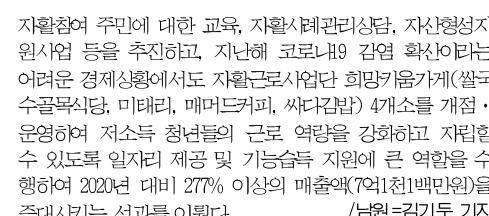
남원지역자활센터,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는 최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자활참여자 성공률(탈수급률)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사업) 모집률 분야에서 남원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탈수급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사업)에 총 34억 원을 지원해 자활사업 참여자 125명 중에 15명이 탈수급에 성공했으며, 통장사업 기준가입자 81명이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하고, 86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남원지역자활센터는 2015년 지역자활센터 유형대변화 사업으로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 위한 신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의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올해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9개의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해 100여명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 자활시례교리상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자활근로사업단 희망기운가게(쌀국수골목식당, 미태리, 매머드커피, 씨다기밥) 4개소를 개점·운영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기능습득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2020년 대비 27% 이상의 매출액(7억1천백만원)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홍보 펼쳐

남원시는 지난 24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와 협동으로 동립로 주변에서 '아동·여성 폭력방지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원 15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배부했다.

남원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남원시, 남원YWCA 통합상점, 남원경찰서, 남원군법지원센터,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폭력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폭력예방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해피니스센터, 오감발달 놀이 교육 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오감발달 놀이 교육을 개강한다.

오감발달 놀이 교육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로 온 물품을 이용한 즐거운 체험으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청의력, 사고력, 잡지능력을 이끌어내는 감성 체험 온물놀이 교육이다.

참여 접수는 네이버 해피니스 카페나 전화상담을 통해 선착순 12명씩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신생아부터 만 2세 유아가 또래들과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감발달 놀이는 부모는 영유아 오감을 자극해 인지·정서·언어·사회성 등 발달단계를 고려해 영유아의 신체 및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엄마와 아기의 상호 간 접촉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마을세무사 주민 세무 상담 펼쳐

무주군은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는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금 고민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어디에도 문의할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로부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무주군 임채영 재무과장은 "재능기부로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마을세무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정보화교육 중급반 개강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스마트스토어 유튜브를 활용하여 농가가 직접 영상제작·편집, 라이브 방송해보는 정보화 교육 중급반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았으며,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8회 구성되어 있으며, 8회 교육 중 60%인 5회 이상 출석자들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주어진다.

교육내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방법부터 유튜브에 올려볼 간단한 홍보영상 편집·제작,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농산품 판매방송 연습 등 다양한 영상관련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이번 교육이 끝나고 8월에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위한 심화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